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내일 0시부터 사순절 연속기도를 시작합니다.
첫째 주간은 학생들 중심으로, 둘째 주간은 성도들 중심으로 기도 시간표에 미리 이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활절 저녁에 모이는 찬양 잔치를 방별로 은혜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랑방공동체 학교 전체 학부모교육이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자연예배당 전등을 교체하였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감사)
석용범 · 박영선 집사 가정 (감사)
한미선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11 호
2024년 3월 1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갑시다

올해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뒤늦게 물러가는 듯합니다. 3월 초만 하더라도 개구리들이 깨어나서 밤이 되면 왁자지껄 우는 소리에 이제 봄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새 송곳 같은 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심지어 하얀 눈이 온 세상을 새하얗게 뒤덮어서 다시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3월에 다시 12월의 풍경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장관에 감탄하면서도, 먼저 깨어난 개구리들이 걱정되기도 하였습니다.(다행히 요새 다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수북이 쌓인 눈이 점차 녹으면서 사랑방의 흙 마당을 지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진흙으로 이겨진 땅 때문에 오가는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특히 졸업과 입학이 있는 시즌이어서 많은 외부 손님들이 오가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여간 드는 게 아닙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편함 때문에, 흙 마당을 포장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다들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진흙탕을 즐거워하는 유일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꾸러기 친구들인데요, 이들은 '천하무적 장화'를 신고 흙탕물에 첨병첨병 씹씹하게 걸어서 들어갑니다. 신발이나 옷이 더러워지든지 말든지 세탁 걱정은 뒤로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옆에서 쳐다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후에 어머니가 지을 인상을 생각하면 더 재미있지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편한 것을 싫어하게 되고,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예상에서 벗어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유분방함을 즐길 줄 압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어린 생명에는 원래 있는 듯합니다.

요즘 들어서 인공의 환경 바깥으로는 나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시도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런 환경 탓에 현대인은 자연과 야생에 대한 감각이 점차 무디어져가고 있고, 이제는 자연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생겨납니다.

자신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 자신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곳이 바로 자연이며 야생입니다. 이런 자연에 대한 감각은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겸손으로, 그리고 자연에서 느끼는 경외감은 우리를 초월로 이끌어 줍니다. 물론 자연의 위대함과 광대함에서 오는 그런 감각들뿐만 아니라, 작은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할 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와 세밀함은 우리를 감탄과 경탄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모든 것을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따지고, 관리와 통제에 머물러 있는 인공의 사회에서 우리가 원래 속했던 곳, 자연으로 나가서 자신을 자연에 맡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두신 자연 속에서, 사회에 속한 모든 신분과 지위를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자연인으로 돌아가, 인간의 솜씨와 창의력으로 이루어진 문명세계가 아니라,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이 되는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 베풀어두신 그분의 솜씨와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연에서 잃어버렸던 온 몸의 감각을 다시 일깨우고, 원래 인간이 속한 곳, 그리고 가꾸어야 책임이 있는 곳을 더욱 가깝게 만나는 시간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까운 뒷산부터 먼저 다녀와야 하겠습니다. 모두들 자연인으로 돌아갑시다!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134 337 / 325
기도 : 이재신 집사
성경 : 마태복음 11장
제목 : 회개, 아버지의 은혜로운 비밀

2-19 예수께서 요한을 높게 평가하시다.

해석: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입증)하는 것은 행한 일로 되는 것이다.
적용: 우리가 하는 일(행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20-24 예수께서 회개하지 않은 마을을 꾸짖으시다.

해석: 예수를 기적을 보는 것,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이다.
적용: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자.

25-30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이다.

해석: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일을 보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적용: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과 가르침으로 살아가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드러내자.

유효기간

코로나 이후, 얼굴을 덧입히는 데 쓰던 색조 화장품은 유효기간이 지나 모두 버려야 했다. 요즘 들어 유효기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산행을 한 적이 있다. 알프스 같다는 소백산 정상, 야생화가 예뻐던 방태산 정상, 제주도에 우뚝 솟은 한라산 정상 등등. 이 중 한라산 등반 때는 날씨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비 온 뒤 파란 하늘, 흰 구름, 따스한 햇볕을 만나 이 모두를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최근에는 친구와 북한산을 다녀온 적이 있다. 아직 진달래는 피지 않았지만, 진달래 능선으로 하산하는 짧은 길이였다. 친구는 그러고 난 후 무릎이 아파 고생했다고 한다. 이렇듯 산에 오를 수 있는 시간도 유효기간이 있는 듯하다.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나를 부르는 그 산, 자연에 대답하고 싶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서 각각의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있을 것 같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유한하니까.

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은행에 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써야 내 돈이지." 하나님께로 받은 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각자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만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리라고.

여기 복합진통 때 받은, 유효기간이 없는 약을 소개한다.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비움사랑방 임은숙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히브리서 4 : 15-16
9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1 : 18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453, 286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정재훈 목사

요한복음 14 : 1-7
268

설교자
미리내사랑방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29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38(1)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이용신 진정행 / 봉헌위원 : 김영동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저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신을 드러내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새로운 표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잠시 떠날 것이나 거처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챙기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가는 곳은 모르지만 그 길은 너희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진리입니다.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가 바로 복음이며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드러난 계시를 믿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충환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날이 너무 좋습니다. 오후에는 겉옷을 입지 않고 산책을 해도 좋을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고모호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학교에서 밥을 먹고, 간식을 챙겨서 고모호수공원으로 갔는데 물이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보석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신이 나고, 선생님들도 신이 납니다. 힘차게 호수를 도는데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예쁜 봄의 모습을 만납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잘 걷는지 1시간 10분 만에 한 바퀴를 훌 돌았습니다. 꾸러기 친구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니 올해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성경이야기는 다윗이야기입니다. 입학예배 설교 때 장영미전도사님께서 다윗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3월에 다윗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을 치는 막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을 받고, 거대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야기는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처럼 돌을 던지고 싶어 하는 친구가 돌과 물매가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대답했는데 3월 말에 성경이야기 활동으로 다윗이 되어서 돌 대신 공으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좋아하겠죠?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3/11(월)~ 3/13(수)까지 남양주 정약용 편그라운드에서 개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엔 미호 박물관에서 신비롭고 다양한 광물, 곤충 표본을 전시도 보고, 조명 포토존에서 예쁜 사진을 찍고 숙소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놀이와 운동을 재미있게 경험하였습니다.

화요일엔 팀빌딩, 마술체험, 뉴스포츠, 오리엔티어링, 천체관측 등

밤 늦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문물을 받아 들였습니다.

수요일엔 프라움 악기 박물관에서 관장님께서 직접 악기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셔서 더 재미나게 듣고 공연도 보며 행복한 시간도 보냈습니다.

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금요일엔 회장단 선거가 있었는데 회장에 권도현, 총무에 이은율, 서기에 이하은 어린이가 당선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어린이학교를 위해 애쓰고 힘쓸 회장단에게 응원에 박수를 보냅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점차 날씨가 풀려가며 바깥에서 간식을 먹는 빈도수가 늘어가는 나날입니다. 학생회가 꾸러지고 자치회가 열리면서, 각종 부서와 동아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더불어 멋쟁이학교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삼정생활에 대한 시험과, 매일 아침마다 실천하는 새천년건강체조의 학년별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연대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1등이 나오는 등, 손에 땀을 쥐는 파격적인 무대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진 재대결에서는 4학년이 최종우승을 거머쥐면서 열린수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학생회의 구 임원과 신 임원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으면서 수고를 축하하고, 앞으로 감당할 역할들을 격려하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교육시간을 가지며 시작합니다. 학교의 교육철학과 내용을 나누며, 더 좋은 교육환경들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멋쟁이들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연속기도회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멋쟁이들이 기도의 장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깊이 다져가는 때가 되도록 격려해주세요.

< 교사 : 이어진 >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정말 유명한 이야기이다. 민가도 상가도 없는 외딴 들판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황홀한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야기말이다. 뉘엿뉘엿 해가 기울고 허기진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낼 무렵 누군가의 소박한 한 끼 양식이었던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더니 오천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

이 드라마틱한 장면을 생각해보니, 올해 사랑방공동체 주제말씀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다른 필요는 모두 채워주시겠다는 비밀스러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싶다.

내가 싸온 도시락을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나처럼 배고픈 옆사람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맡겨 드렸더니 다함께 그 어느 때의 밥상보다 넉넉하고 행복한 식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놀라운 나눔과 하나됨의 순간이라니!

잠시 내게 있는, 내가 드릴 보리떡과 물고기는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올해 꾸러기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네 명의 꾸러기 친구들이 생각한다. 이 귀엽고 소중한 네 친구들과 함께 놀며 돌보고 키우는 것이 예수님께 드릴 나의 빵과 물고기 같다.

꾸러기들의 앞으로의 삶과 이 곳 사랑방공동체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나는 모른다. 다만 거저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하루하루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이루어낸 행복한 밥상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도 : 이어진 전도사

찬송 : 540장, 96장

성경 :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땅한 행동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끊이지 않는 전쟁 중에 긴 시간 동안 금식하는 라마단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큰 비극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쟁이 종식되기를, 그리고 모든 전쟁의 피해자들을 위해 이 땅의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부활절을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해>
1) 이 땅의 교회와 신앙공동체들이 주님을 목상하며 복된 사순절을 이어가도록
2) 앞서 걸어갈 믿음의 리더들을 위하여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1) 공동체학교들을 위해, 특별히 여행중인 어린이학교를 위해
2) 사순절 연속기도를 위해, 학생들과 식구들에게 특히 은혜로운 기간이길.

<생활공동체 소식 >

나뭇가지 끝에 꽃봉오리가 맺혀가는 요즘입니다.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산수유나무와 목련은 이번 주에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식구들도 꽃을 피우듯 봄을 맞이하기 위해 애쓴 한주였습니다. 공동체 주변을 정리하고 고랑도 파고 나무도 정리했습니다. 아직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모습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베다니 하늘주방에서는 된장과 고추장을 담그셨습니다. 공동식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지라 며칠을 두고 준비하셨습니다. 정성으로 만들어진 장으로 건강한 식사,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로 공동체는 유지됩니다. 기쁨의 섬김이 더욱 가득한 사랑방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